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pnews.org
영어판 gpnews.org/english
일본어판 gpnews.org/japanese
중어판 gpnews.org/chinese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4. 8. 18 ~ 2024. 9. 7 제304호

동성혼 합법화 반대 100만 크리스천 서명 운동 진행 중

최근 대법원이 남자 동성커플을 유사 결혼관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반기독교적 성향으로 질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질서 바로잡기 행동하는 크리스천 시민연대'(이하 행크)가 '동성혼 합법화 반대 100만 크리스천 서명 운동'에 나섰다.

지난달 18일, 대법원이 결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주는 국민건강보험 혜택(피부양자 자격)을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도 결혼관계의 배우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결혼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결합이라는 법적 정의를 위반하는 판결(헌법 제36조 1항)"이라고 행크는 지적했다.

행크는 "법원 스스로 새로운 법을 만들 권한도 없는 현실에서 대법원은 위헌적인 판결로 삼권분립의 원칙

을 깨어버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동성애 동성혼 입법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가 국회 앞에서 반대 입장을 외쳤지만, 하루 아침에 이번 판결로 그동안 한국 교계가 쌓아올린 방과제가 일순간에 무너지게 됐다."며 "이런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분명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동성혼 입법을 방관한다면, 동성결혼이 수년 내에 합법화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가족 정의가 불법이 되고 신앙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자녀 세대에게 결혼과 가족에 관한 성경적 교육이 혐오 교육이 되어 자녀들의 성 윤리가 왜곡되어 영혼이 고통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 결합 파트너에게 확대 적용한 판결 이후 2년 만에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나왔으며, 지금은 크리스천들이 힘을 모아 행동할 때라고 말했다.

행크는 "이번 국민청원에 100만 명이 참여한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명 운동을 통해 성도와 국민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행크의 지도위원으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박찬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박진석 목사(기쁨의교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이번 서명 운동에, 개시 6일 만에 1만7천 명이 참여해 동성혼 합법화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주최측은 전했다. [GPNEWS]



“십자가에 선 예수님의 연약하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어요”

미국 한인 2세 청소년 45 명이 지난 7월 16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의 또래 청소년들을 만나고 한국의 다양

한 기독교 문화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 다음세대들이 사도 바울처럼 준비되기를 기대하며 인솔한 뉴저지초대

교회(박찬섭 목사)를 방문 기간 중 만났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87)

노아, 하나님이 명하신대로 다 하다

죄악에 물든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다.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썸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창세기 6:8~10 KSV)

노아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노아 역시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 당연히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그가 죄로 인한 형벌, 곧 자신의 죽음을 대신 할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증거로 보인다. 노아

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믿었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한다. 이렇듯 노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창세기 6:13~14 KSV)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한 척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배는 항해를 위한 것

이 아니었다. 이 배는 오늘날 2~3만 톤급 화물선과 비슷한 정도로 컸다. 거기에는 삼층 갑판과 환기를 위한 창문 그리고 출입문이 있었다. 특이한 것은, 그 배의 문이 오직 하나뿐이었다는 점이다. 배의 안쪽은 송진으로 방수처리를 해 물 새는 곳이 없도록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 배는 길다란 사각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방주'라고 불렸다. 이 방주는 1844년 '그레이트 브리튼'호를 지어 똑같은 크기로 방주를 재현해 볼 때까지 역사상 사람이 지은 배 중에서 가장 큰 배였다. 이 방주의 안전성은 치수와 비율에서 지금도 대형 선박의 이상적인 설계로 여겨지고 있다. 이 방주의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목적은 빨리 항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잘 떠 있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 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

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 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을 거리를 가져다가 쌓아 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창세기 6:17~19, 21~22 KSV)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 문의

010-6326-4641

포토뉴스

네팔, 산사태 이어 비행기 추락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 구하며



▲ 네팔의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두 여인. 제공: WMM

네팔 한 마을의 공동 빨래터의 풍경이다. 두 엄마가 가족들의 옷을 빠는 동안 아이들은 쭈그려 앉아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하루 종일 뛰어 놀고 먼지와 땀이 뒤범벅된 아이들의 옷을 비벼빠는 엄마의 입가에는 힘든 기색이 아닌 미소가 머금었다. 더욱 씩씩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수북이 쌓아놓은 빨래 너머로 전해져 온다.

이런 평화로운 네팔의 일상은 최근 전지구적으로 일어난 기상

이변처럼 산사태로 뒤엎졌다. 지난 7월 12일 오전 수도 카트만두에서 남서쪽으로 100여km 떨어진 나라양하트-무글링 고속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휴더미 등이 지나가던 버스 2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 2대가 도로를 이탈해 많은 비로 불어난 트리슈리강으로 추락한 뒤 강물에 휩쓸려 내려갔다. 이번 사고로 시신 3구는 수습됐지만 50여 명의 실종자의 생존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24일에는 사우리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카트만두에서 출발해 휴양 도시인 포카라로 향하던 중 추락했다. 1명을 제외하고 탑승자 18명 전원이 숨졌다.

지금 네팔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필요하다. 자식을 돌보는 어미의 마음으로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할 자를 보내주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룻 2:12) [GPNEWS]

美 테네시주 마운트 줄리엣,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결의안 통과

미국 테네시주의 한 도시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기도를 받아들이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페이스와이어가 지난 1일 전했다.

마운트 줄리엣(Mt. Juliet)시 당국은 7월 22일 공식 입장을 표명하며 하나님을 “모든 영광의 창조주이자 왕”이라고 부르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시민들이 원한다면 기도를 받아들이도록 장려했다. 시 위원들의 이러한 노력은 7월을 기도와 금식의 달로 선포한 테네시주 결의안을 지지하는 것이다.

앞서 테네시주 하원과 상원 의원들은 최근 하원 공동 결의안 803(HJR 803)을 승인했고, 주지사가 이를 서명했다. 이는 특히 정교

분리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마운트 줄리엣의 이번 결의안이 주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결의안은 “우리는 창조주이자 모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국가나 주를 심판하고 축복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합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이번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힌 마운트 줄리엣 1지구 위원 레이 저스티스(Ray Justice)는 기도와 감사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기도는 매일, 하루에 여러 번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처럼 분열된 세상에 살고 있다면 가능한 한 자주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내 개인적인

성향과 신념”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마네스(James Maness) 마운트 줄리엣 시장은 7월 22일 회의에서 주 결의안을 시에서 채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결의안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의안에 대해 “이는 주에서 기도와 금식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는 테네시주 시민들이 원한다면 기도하고 금식할 문제들을 명시한다. 이 결의안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테네시주에서 이미 통과된 기도와 금식의 달을 선언한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中 ‘국가 인터넷 신분증’ 도입 추진... 온라인 통제 우려

중국이 인터넷에서 별도로 사용되는 ‘국가 인터넷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온라인 통제 강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뉴욕타임스 등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 공안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주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방법’에 대해 지난달 25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한다는 공고문을 냈다. 이는 인터넷 업체들이 하는 개인 신분 인증을 국가가 직접 맡겠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온라인 통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가 인터넷 신분증 제도를 도입해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하는 중국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땅의 교회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명의 통로 되게 하소서.

필리핀,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 하원 통과

필리핀에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달 31일 현지 일간 인콰이어러를 인용해 전했다. 필리핀 하원은 전날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을 찬성 117표 대 반대 9표, 기권 9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환자들에게 의료용 대마 이용을 허용하고 규제하는 의료용 대마 담당 부서를 보건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용이라 합리화하며 대마를 합법화시켜 모두 함께 멸망으로 가는 필리핀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교회를 통해 명확한 진리가 선포되고 세워져 말씀 안에 행하며 주를 따르는 나라로 서게 하소서.

우리나라 국민 70%,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가 판결이 나온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바른교육학부모전국연합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가 10.5%였다.

성별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생각하며 정욕대로 행하는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시고,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GPNEWS]

오늘의 기도방송
9월 2일~27일 (매주 월요일-금요일)
기간 9월 2일 ~ 27일(매주 월-금)
시간 아침 6시~7시 “생방송”
방법 YouTube “기도24365” 채널 구독
문의 010-387-24365

3차 느헤미야52일 프로젝트
2024. 7월 1일 ~ 8월 29일
| 참여대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 기간 2024년 7월 1일 ~ 8월 29일 중 하루를 정합니다. (단, 주일은 제외)
| 기도방법 느헤미야52기도 6종 기도정보 중 하루에 한 권을 선택하신 후, 정하신 날짜에 하루 24시간 기도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 장소선정 이 기도에 함께 연합할 분들을 동원하여 가정이나 교회, 어디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도24-365 홈페이지, 010-9440-4365 (느헤미야 담당자)



‘여자 올림픽 복싱 성별 논란’ 기독교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일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예선전에서 남성 염색체(XY)를 가진 이마네 켈리프(Imane Khelif)와 경기를 벌인 안젤라 카리니(Angela Carini)가 경기 시작 46초만에 기권을 선언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문화전쟁에서 성급한 비판 이전에 기도하며, 성경적이고 생물학적 진리를 옹호해야 한다고 데니스포럼의 칼럼니스트 파커 존스(Parker Jones) 목사가 최근 밝혔다.

불공정한 경기

여성 스포츠 보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카리니와 켈리프의 경기 직후 켈리프가 이전에 성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제 대회에서 실격 처리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카리니는 켈리프의 이력을 알고 있었고, 경기 후 기자들에게 경기의 공정성 여부는 자신이 판단할 몫은 아니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기를 중단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는 카리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후 “이것은 공정한 경기가 아니었다.”며 경기의 공정성에 대해 언급했다. 멜로니 총리는 “남성의 유전적 특성을 가진 선수는 여성 대회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성 선수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켈리프에 대한 정보들을 보면, 그는 성발달이상(Disorders of Sex Development, DSD)이라는 발달 질환을 겪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독특한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켈리프의 경우, 남성 염색체(XY)와 교환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외부 성기는 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DSD는 또한 남성 수준의 테스토스테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는 여성이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비슷한 신체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감수분열 과정의 이상으로 생긴 질환으로 여기지만, 젠더주의자들은 이를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DSD를 성발달차이(Difference of Sex Development)라고 주장하고 있다.

켈리프가 DSD를 가지고 태어난 유일한 올림픽 복싱 선수는 아니다. 지난 2일 오전, 우즈베키스탄의 시토라 투르디베크바(Sitora Turdibekova)와의 예선전에서 승

리한 대만 복서 린 유 팅(Lin Yu Ting)의 출전 자격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문이 제기됐다. 켈리프와 린은 모두 성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작년 국제복싱협회(IB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실격 처리된 바 있다. 이전에는 IBA가 올림픽 복싱을 관리했지만, 지금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복싱을 감독하고 자체적인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IOC는 이 논란에 대해 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켈리프와 린은 모두 위원회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성별 확인을 위해 여권을 제출했다. 또한 IOC는 두 선수가 수년 동안 국제 복싱 대회에서 여자 체급으로 출전해 왔기 때문에 두 선수의 실격 처분이 IBA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IOC는 대회 도중에 자격 기준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성 스포츠 존립 위협

이에 파커 목사는 “두 선수 모두 트랜스젠더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자부 출전권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 두 선수에게 경쟁 우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육체적으로 힘든 모든 스포츠는 경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한이 필요하며, 이번 사건은 여성 스포츠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례 중 가장 최근의 사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수영 선수 리아 토마스(Lia Thomas). 출처: 유튜브 채널 ABC News, TODAY 캡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마스(Lia Thomas)는 2022년 라일리 게인스(Riley Gaines)를 제치고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NCAA)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토마스는 지난 6월 법적 소송에서 패소해 올림픽 출전이 금지됐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IOC는 각 종목의 출전 자격 기준을 각 협회에 맡기고 있다. 복싱의 경우, 켈리프와 린의 출전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들이 참여할 자



▲ 지난 1일 열린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예선전에서 남성 염색체(XY)를 가진 이마네 켈리프(Imane Khelif)가 펀치를 날리는 모습. 출처: 유튜브 채널 The Times and The Sunday Times 캡처

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파커 목사는 “켈리프의 성별 정체성 문제가 주요 화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 논의의 핵심은 경기의 공정성과 안전성”이라며 “복싱은 원래 위험한 스포츠이지만, IOC는 카리니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하는 위치에 놓았다. 이는 켈리프와 린을 포함해 경기를 펼치는 모든 여성 선수에게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선수 모두 과거에 패배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생물학적 이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번 경기에서의 패배가 상황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파커 목사는 “기독교인들은 이러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히 논의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논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태도로 참여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진리 옹호 위해 진실 파악해야

그는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켈리프의 경우처럼 논란이 많은 주제에서는 사실과 진실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보와 감정적인 반응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커 목사는 “사도 바울은 교회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골 3:12)라고 명령했다.”며 “이러한 말씀은 복싱 논란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자비를 입을 것처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뜨거운 이슈들이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지만,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겸손과 온유의 부름에 주의를 기울여 친절 없이 또는 모든 사실 확인 없이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경향에 맞서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여성 스포츠를 둘러싼 싸움이 계속됨에 따라, 기독교인들은 모든 경기의 의사 결정권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여성 선수들의 경쟁을 해칠 위험이 있는 수많은 사례가 드러날 것이다. 전 세계의 부모, 관리자, 위원들은 여성 스포츠의 안전과 안정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러한 의사 결정 기관의 일원이 아닌 이상, 우리의 주요 역할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 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기 전에, 성령님께 진리와 사랑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라고 부르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GPNEWS]

한 문제에 접근할 때,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이번의 경우,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이고 생물학적 진리를 옹호해야 한다.”며 “우리는 여성 스포츠가 안전하고, 경쟁적이며,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싸워야 한다. 나는 내 딸이 선택한 모든 스포츠에서 적절하고 안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세상에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가 켈리프와

그는 “기독교인들은 이 상황 리아 토마스나 다른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켈리프와 린이 DSD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것은 우리의 완벽한 창조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 모두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성별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기독교인은 자비롭고 진실하도록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이러한 현실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다음세대에 소망을 품은 박찬섭 목사 (뉴저지초대교회)

• 1면에 이어

- 이번에 어떤 목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방한하셨나요?

“저희 뉴저지초대교회는 매년 여름 학생들이 선교지를 방문해 안목을 키우고 열방을 섬기는 좋은 리더로 키우자는 목적으로 듀(DEW)미니스트리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듀는 시편 110편에 나오는 새벽이슬을 뜻하기도 하지만 ‘Daniel Explores Witness’의 약어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십대에 뜻을 정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기백을 나이 90세가 될 때까지 그대로 품었던 것처럼 그런 다니엘 세대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른들은 지도와 안전을 위해 도움을 주고, 모든 사역의 실행은 학생 리더십이 팀을 이끌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난해는 튀르키예를 방문하고 올 해는 한국을 오게 됐습니다.”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 세대를 세우자”

- 선교지 방문 일정으로 한국을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해 튀르키예 선교를 준비하던 중 지진이 나서 잠깐 멈춰섰습니다. 우리가 목기로 했던 교회 건물이 무너져 당장 머물 곳이 사라지기도 했고, 지진 피해 지역에 전염병이 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있는 충남 서산의 헤브론원형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고려인을 만나고, 선교사들이 세운 한남대를 탐방하고 전주를 거쳐 여수 애양원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행적을 알아보고 제주도의 예수제자훈련학교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뉴저지초대교회는 이런 프로젝트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과거에 이 교회 부교역자로 섬기기도 했어요. 그러다 2년 전 청빙을 받아 이 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다음세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회가 운영되어 왔어요.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는데 교회의 교육 시스템은 그런 변화 없이 정체되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교회도 다음세대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교회는 세상이 주는 다양한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은 선교하는 삶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로 지난해에 지진이 났던 튀르키예로 갔어요. 어렵기는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었어요.”

“

다음세대들이 선교하는 삶에서 세상을 이길만한 큰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셨어요. 나이차가 많은 형들은 다 일을 해야 했고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간 돌봐야 했어요. 당시 아버지는 거동도 못하고 말도 못하셨지만 저는 아버지와 마음 속으로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은혜로 제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가장 연약한 상태의 아버지로 인해 제가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연약하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의 경험이 저에게 십자가 신학을 선명하게 받아들여지게 했어요. 나하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해 아버지는 전 삶을 쏟으셨구나. 이렇게 제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으로 아버지 인생 전체를 드리게 하셨구나. 아버지는 정말 고귀한 분이었구나. 그렇게 제 마



제공: 박찬섭 목사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1년간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1~2주 동안 선교지에 가서 함께 지내고 먹고 마시며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미국은 6월에 학기가 끝나요. 그러면 시간을 맞춰서 6월에 10개 부서가 3주 안에 모두 여름성경학교나 수련회를 가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떠납니다.”

-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려면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부유한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재정 싸움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바자회도 하고, 부모님께 개인 용돈을 주지 말고 학생들 간식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이 기간 동안 개인 용돈 사용을 금하고 있어요. 또 휴대전화도 사용을 못하게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과 일정에 집중하게 하는데 실제 적용해보니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참여 인원도 신청자 중에서 준비비를 해요. 이번에도 더 많은 인원이 지원했는데 준비비를 통해 이번 참여 인원이 결정됐어요.”

-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려움이 없나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휴대전화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유의하다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공동체 활동이 진행되는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집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휴대전화가 없으니,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참가자들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집중할 수 있어요.”

-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뉴저지초대교회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올해 설립 39주년을 맞았는데, 현재 성인 2400명과 청소년 120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외형상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본당보다 교육관이 크다는 거예요. 교회 본당은 500석 규모입니다. 10여년 전 모든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건물을 준비하다가 2013년에 교육관을 본당보다 1.5배 규모로 짓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다음세대를 섬기는 교회로의 부르심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 그러한 목회방침에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었군요.

“성도들은 물론 선임 목회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니다. 제가 부임하기 바로 전에 계셨던 박형은 목사님, 한규삼 목사님, 지금 은누리교회를 섬기는 이재훈 목사님 등이 기도하

면서 남긴 열매죠. 또 성도님들도 다양한 경력과 이력을 가진 분이 많아요.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나라라고 여기고 살아왔지만 실력이나 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런 교회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런 교회의 영적 환경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웬만큼 구사하고 있는 한인 2세들은 선교에 매우 적합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주님의 부르심과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두 문화권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과 애굽 민족을, 다니엘은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문화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인 2세는 문화적으로 장벽을 넘여가기 쉽고 어느 민족이라도 이질감 없이 대할 수 있어요. 이런 다음세대를 성령의 역사로 잘 훈련시켜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기고 있어요.”

“한인 2세는 선교에 적합한 세대”

- 그런 배경에서 듀미니스트리가 나왔군요.

“네, 저희도 듀미니스트리가 잘 정착되어 주변 교회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삶에서 세상을 이길만한 큰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되고, 1년 내내 배운 것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오직 선교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교회들마다 다음세대들이 세워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 이번에 한국의 다음세대를 만나는 헤브론원형학교에서 진행된 캠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한국 다음세대가 영어가 서툴러 조금 어색했지만 금새 친해지고 헤어질 무렵은 서로 부둥켜 안고 헤어지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특히 이곳 다음세대는 이미 다음세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양육되는 청소년들이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복된 만남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미국과 한국의 모든 학생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6개의 스킴으로 만들어 성경의 등장인물 역할을 하면서 큰 도전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 네, 마지막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귀한 일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GNNEWS]

C.K.



▲ 뉴저지초대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박찬섭 목사(좌), 헤브론원형학교에서 진행된 영어캠프에서 학생과 함께. 제공: 박찬섭 목사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여해 큰 은혜 가운데 1회 듀미니스트리가 진행됐어요. 올해도 당초 목적지는 북아프리카의 한 나라로 갈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 지금 중동 지역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슬람 국가로 가는 게 어려워져 한국으로 변경됐습니다.”

- 이번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에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 12학년으로 구성된 학생 45명과 교사 9명이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세대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 다음세대에 대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목사님의 개인적인 사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과정을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소년기에 예수전도단의 킹스키즈 프로그램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그 이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을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내는 것을 저의 목회 사명으로 받고, 교회 부임 이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목사님의 청소년기는 어떤 시기였나요?

“고등학교때 아버지가 많이 아프

음에 정리가 됐어요. 덕분에 그 원망의 시간이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기억으로 남게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방법으로 진행되는 듀(DEW)

- 그런 배경을 들으니 교회의 다음세대들이 아웃리치를 통해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실에서만 가르치지 않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자고 경험하는 제자훈련을 진



우리가 기도한 후 귀신이 사라졌다



제공: 한국WEC국제선교회

어느 날 집 앞 야채 밭에 가는데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여자 아이가 지나가면서 내게 인사를 했다. 내가 알고 있는 K의 막내딸 마리암(가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녀는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나는 막연히 그 아이가 주님께

속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리암을 키즈클럽에 초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며칠이 지났을까. 마리암이 귀신이 들려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곧 그녀의 가족들은 마리암을 이곳

감비아에서 세네갈의 마라부(주술사)에게 데려갈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왔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목사님과 함께 그 집에 가서 기도하자는 약속을 잡고 다음 날 방문했다. 그 집 안은 현지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칙칙하고 어두웠다. 준비한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다. 마리암은 이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도를 하기 위해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소리를 너무 크게 높이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게 기도하며, 마리암이 주님의 딸임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는 기도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저녁 세네갈에 있는 마라부에게 갈 예정이라는 것을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집을 나서야만 했다. 일주일이 조금 지났을까. 마리암이 세네갈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방문했다. 마리암의 엄마인 K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를 본 K는 우리가 함께 가서

기도한 뒤로 딸이 좋아졌다고 했다. 마라부가 준 약은 사실 일주일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기도한 후로 귀신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됐다고 했다. 뜻밖의(?) 답변에 기쁘기도 했지만, 너무 놀랍기도 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다 이전에 계획했던 대로 마리암을 키즈클럽과 어린이 성경공부에 초대하려고 하는 시점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마리암의 아버지는 학교에는 진(Jinn, 악령)이 많아 딸을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보내지 않고 대신 도시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키즈클럽을 통해서 만날 아이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던 나로서는 어이가 없기도 했다. 그리고 마리암의 아버지는 전학 갈 학교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아이를 도시로 보내 버렸다. 나는 그 후에 한참 동안 마리암을 보지 못했다. 물론 나는 그 가정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했다. 얼마 전에 이곳의 큰 명절인 코리테(Korite, 라마단 금식을 끝내는 축제)를 맞아 마리암이 시골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일반 학교에 입

학이 안 되어 아직 학교는 다니지 않고, 다만 오후에 코란을 배우는 곳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한동안 핸드폰이 망가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그 친구의 핸드폰을 빌려 가끔 말씀을 듣는다고 했다. 귀신 들린 마리암을 위해 기도하려 갔을 때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내가 믿었던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리암이 듣고 있을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GPNEWS] 감비아=신은경 선교사 제공: 한국WEC국제선교회 RUN 매거진

독자편지

하나님 나라의 멋진 소식통 복음기도신문을 우체통에 넣으며...

우리 동네에는 해발 100미터도 안 되는 작은 산 하나가 있다. 산책길이 잘 조성되어 사람들이 제법 있는 길이다. 처음에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일상의 얘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기도신문을 드리곤 했다. 그 산을 넘으면 개인 전원주택 구역이 있다. 5년 전쯤에는 22채였는데, 이제는 38채다. 보름에 한 번씩 그곳에 있는 우체통에 신문을 넣는다. 그곳에는 점집이 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현관에서 계시는데 움짤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인사를 하고 우체통에 신문을 넣으려는데, 할머니가 치우기 힘드시라며 다시 넣지 말라고 하셨다. 웃으면서 “네~” 하고 대답을 하고 “이번에는 그냥 갈게요.”라고 인사를 했다. 이후로 마주친 적은 없지만, 그 집 앞에서는 할머니를 위해 기도한다. 한 집은 엄청 큰 개가 짖으며 달려 나온다. 가끔은 무서워서 그 집은 지나친다. 하지만 2층에서

짖고 있는 큰 개가 있는 집에는 당당하게 신문을 넣는다. 어느 집은 교회 마크가 붙어있는데, 신문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후로 ‘전단지 금지’라고 써 붙여 놨는데, 신문을 보며 ‘이게 전단지인가?’를 생각했다.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그 집에도 한결같이 신문을 넣고 있다. 함께 신문을 접어주시던 아버지도 지금은 전국에 계신다. 사람들과의 직접 대면이 어려워 우체통을 선택한 것이, ‘주님 앞에 너무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공격도 있었다. 그러나 이 구역을 접수하며 주님께 꼭 드리는 기도가 있다. ‘주님, 누군가는 읽게 해주세요. 이후에 전국에서 만나면 꼭 알아보게 해주세요.’ 가끔 미를 때도 있지만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산을 넘고 있다. 우리는 고물상에 오시는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신문을 드린다. 음료를 드실 때 예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수님을 나누고, 신문을 드리면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종이컵도 신문도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가치에 기빠하지만, 때가 이르면 폐지 신문 한 장 속에 담긴 복음이 얼마짜리인지, 절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생명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얼마 전에는 책장에서 엄청 시간이 지난 빛바랜 신문 몇 장을 발견했다. 몇 장을 깔아놓고 마늘을 까는데 여전한 감동이 있었다. 세상 신문은 새로움이 생명일지 모르나, 복음기도신문은 다르다. 시공을 초월하여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울컥했다. “그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 응원하며 갈 수 있도록, 그

리고 누군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멋진 소식통을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번에 실린 사람풍경 예랑이의 이야기도 감동 그 자체다.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던 가정이라 그런지 더욱 마음이 실렸다. 한 작은 아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성장시키는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다. 부모가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 주님이 그 부모를 성장시키셨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키시고, 계속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그저 찬양할 뿐이다. 주하! [GPNEWS] 윤영순 집사 (인천풀뿌리산곡교회)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노예선 장 존 뉴턴을 생각해 보라. 추악한 죄에 빠져 지내는 뱀사람이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아프리카 해안에서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죄에 죄를 더하던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자비의 은혜로 남은 생애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보냈다. 그는 수차례 열병을 앓았지만 목숨을 잃지 않았고, 배가 여러 번 파선을 당했지만 물에 빠져 죽지 않았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가 집으로 돌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남은 일생을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채 세상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자여! 뉴턴이 영접한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 기록에, 진정한 행복에, 영원한 생명에 이제 그만 굴복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이다. [GPNEWS]

‘네 주께 굴복하라’ (C.H. 스펄전)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7)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4,5)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려면 거룩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죄에 대한 심판은 그대로 다 치러져야 한다. 이처럼 죄에 대한 심판은 시행하되 그 죄와 함께 있는 나를 살려야 구원이 이뤄진다. ‘죄가 곧 나요, 내가 곧 죄’이므로 나에게 있는 죄를 완전히 심판해야 죄가 끝장나서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심판하자니 내가 죽겠고 나를 살리자니 심판을 할 수가 없는 이 딜레마를 주님은 해결해야 했다. 이를 하나님은 우리가 상

상도 할 수 없는 대속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대속은 누군가 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서 그가 갚은 모든 것을 내가 갚은 것으로 여겨준다는 말이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로운, 대속의 의를 주님은 마련하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은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롬 3:23-26)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우리도 떳떳하게 하는 길을 마련하시려고 나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심판으로 다 끝장내신 다음 한뫼만 남겨놓으셨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갚아준 그 공로를 믿음으로 온전히 취해 그에게 일어난 일을 나에게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실 때 내 이름으로 내가 되어 죽으셨으니 그분이 죽을 때 변하지 않던 나도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태초에 주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사 여자



일러스트=고은혜

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셔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내게 있는 죄를 심판하여 죄에 대한 문제를 끝내시고 나를 살리심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나의 의로움을 얻기 위해 내가 직

접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졌음을 믿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고,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살아

가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며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믿기만 하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2018년 9월) <계속> [GPNEWS]

김용의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선교적 존재로서 예수님의 제자되어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모집

- 1. 삼성초대교회 부교역자**
(목사·전도사·선교사·평신도사역자 등 무관
급여: 280만 기준·근무시간따라 조정)
- 삼성연합의원 원목 겸임
- 2. 간호조무사**
(경력자 우선 채용, 급여 280만)
- 3. 연수원 관리소장**
(경력자 우선 채용, 급여 300만)

문의

삼성연합의원 · 삼성초대교회 ☎ 010-8528-3217
숙식·근무일 조정 가능합니다 ☎ 010-3705-9188

삼성연합의원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리 820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별도구매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6종(5권) eBook은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스24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책임교사를 위한
교육백서

GPM 도서

값 8,000원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해 헤브론원형학교는 교육의 주체를 교사, 책임교사로 명명된 부모, 신앙의 터전인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땅의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용감하게 자신을 드러 순종하는 순종의 전문가, 용감한 정예병으로 자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의 역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사, 로그미션 대표)

“책임교사로, 교육선교사로 각각 헌신하여,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마을마다 동네마다, 종족마다, 나라마다 증거하고, 거짓과 탐욕, 어둠과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자녀들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길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로 쓴(주홍글씨), <책임교사를 위한 교육백서>의 일독을 강추합니다.”
장갑덕 목사(대전 카이스트교회)

복음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boaz.co.kr



못 본 체하지 말라

십자가 복음을 만난 이후 이제는 선교적 존재로 살리라 결단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복음사관학교(GNA) 훈련생을 마치고 협력간사로 참여하게 됐다.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훈련을 통해 평소에는 몰랐을 '나'를 보게 됐다. 파스칼의 말처럼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주님은 나를 발견하기 위한 작은 벌레를 예비하셨다.

어느 날 강의를 듣기 위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내 눈앞에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보였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던 길을 갔다. '지나가는 누군가가 잡겠지.' 이것이 내가 가진 마음이였다. 그리고 그날 청소 시간에 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혹시 지나가는 벌레를 보고 치우시나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요?" 이 질문 앞에 순간 마음이 흠뻑했지만 애써 이 문제를 마음에 담아 두지 않았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또다시 숙소 복도에서 벌레를 보게 되었다. 그때도 동일하게 그냥

지나쳤다. 마음속에 합리화가 일어났다. "잡고는 싶은데 지금 내 수중에 휴지가 없잖아.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바쁘잖아." 나는 휴지가 없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쳤다.

그리고 그 주간에 메시지가 선포됐다. 제목은 '못 본



일러스트=고은선

체하지 말라'였다. 신명기 22장 1~4절이 본문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못 본 체하지 말고'라는 문장이 3번이나 나왔다. 형제의 소나 나귀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찾아주고, 돌려주고 일으켜 주라는 성경 말씀이었다. 못 본 체하고, 못 들은 체하는 것은 결국 나를 속이는 것이라 말씀하셨다. 이것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일로 발전한다는 것이었다.

이 메시지를 듣는 그날 나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나 자신이 얼마나 나를 합리화하며 못 본 체하며 넘어가려는 자인지를 보게 하셨다. 결국 이것은 하

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였음을 알려 주셨다. 휴지가 없는 게 아니라 지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한 가지를 더 알려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본 체하지 않으셨다. 길 잃은 소나 양도 못 본 체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귀한 우리들을 못 본 체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못 본 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 지불하신 것이다.

이처럼 주님은 나의 일상의 작은 일 하나에도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발견하도록 하셨다. 그날 이후 주님은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 일상의 작은 영역에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다. '내가 아닌 누군가 하겠지.'라는 마음에서 지체를 돌아보고 먼저 섬기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닦도록 만드신다. [GNNEWS]

박성필 이것은 휴지가 있고 없고

데이터로 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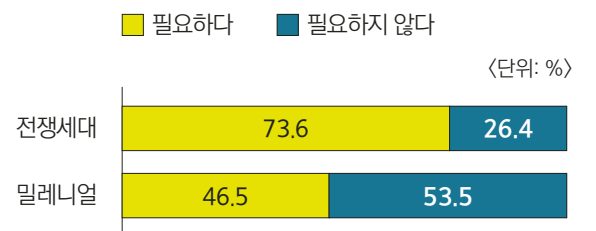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 필요성' 낮아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한편, 통일의 이유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일수록 '전쟁위험 해소'를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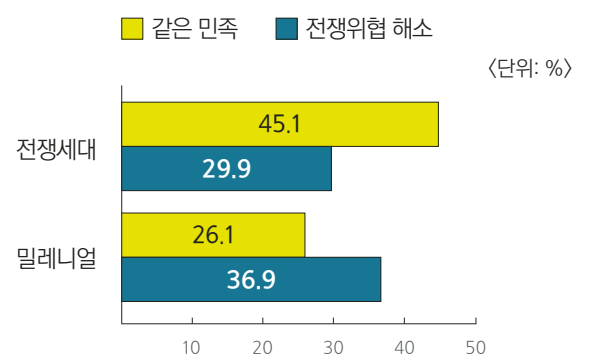
통일연구원(KINU)이 지난 6월 발표한 '통일의식 조사 2024'에 따르면, 전쟁세대(1950년 이전 출생)는 73.6%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밀레니얼세대(1991년 이후 출생)는 46.5%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일 필요성 인식의 세대별 비교



또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쟁세대는 같은 민족이어서가 45.1%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밀레니얼세대는 전쟁위험 해소(36.9%)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통일의 이유 세대별 비교



(자료: 통일연구원)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통일을 바라고 있는 다음세대에게 독재 정권 아래 고통 당하는 북한의 주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사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한민족 되게 하소서. [GNNEWS]



북한 부흥을 위하여

탈북민 가족 돈 유용하던 송금 브로커, 北 보위부에 체포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

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최근 북한의 일부 송금 브로커들이 탈북민 가족들이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떼어먹으려다가 보위부에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데일리NK가 지난 5일 전했다.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던 한 50대 A씨는 지난달 20일경 회령시 보위부에 체포돼 현재 간첩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매체의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4월 A씨는 청진시에 거주하는 탈북민 가족에게 1000달러(한화 약 136만 원)를 전달하면서, "한 달 뒤에 이자 300달러를 붙여 1300달러(약 177만 원)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탈북민 가족들은 A씨의 말에 귀가

솔깃해 돈을 맡겼지만, 정작 한 달 뒤 A씨는 "한 달만 더 맡기라."며 시간을 끌었고, 계속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탈북민 가족은 "본전이 라도 돌려달라."며 A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회령시 보위원들이 A씨의 가택수색으로 이어졌다. 보위부는 집에서 발견된 중국 휴대전화에 깔려 있는 위챗 메시지를 통해 외부 정보를 접했다는 것으로 그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소식통은 "일부 송금 브로커들은 탈북민 가족들의 돈을 떼먹어도 이들이 처벌받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강도처럼 행동하기도 하는데, 결국 A

씨도 1000달러에 욕심을 내다 목숨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A씨에게서 돈을 받으려던 탈북민 가족 중 1명은 이번 사건으로 6개월 노동단련형을 받았다.

기도 | 탈북민
의 가족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인간 존재의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불신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을 제하여 주십시오. 북한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가 사랑이 흐르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GNNEWS]



▲ 중국 지린성 투먼시에서 바라본 북한. © 복음기도신문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음악이 있는 삶

Life with Music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

나 한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

2007년, 피겨라는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있다는 것도 생소한 때에 옛된 소녀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국제 피겨 대회에 출전한 장면을 TV 중계로 보게 되었다. 얼음판 위에서 아름다운 선을 그려가며 음악과 하나가 된 선수의 연기를 눈을 놓고 보았다. 해설자가 알려준 곡의 제목은 '종달새의 비상(The Lark Ascending)'.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선수의 연기는 그 음악을 잘 돋보이게 했다.

처음 듣는 5음계의 아름다운 선율에 우리나라 작곡가가 만들었나 싶은 궁금증이 일어났다. 찾아보니 작곡가는 20세기 초중반의 영국 작곡가, 본 윌리엄스(R. Vaughan Williams)였다. 5음계는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Auld Lang Syne)' 등, 우리에게도 친숙한 찬송가의 선율이다.

협주곡 형식으로 솔로 바이올린

과 곡 전반에 흐르는 잔잔하고 자연스러운 오케스트라의 음향은 그냥 눈을 감고 있으면 제목 그대로 종달새가 광활한 하늘을 오르내리는 이미지가 연상된다. 일반적인 협주곡은 빠름-느림-빠름의 3개 악장으로, 첫 번째 악장은 소나타 형식(sonata form)으로 이루어지고, 솔로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경쟁, 대비, 조화'를 이루어가지만, 이 곡은 독특한 양식의 협주곡이다. 단악장 형식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 바이올린이 자유로운 연주가 곡을 이끌어 간다.

제목처럼 한 종달새가 하늘을 나는 듯, 솔로 바이올린이 5음계로 저음에서 고음까지, 또 고음에서 저음으로, 빠르게 오르내린다. 곡의 초반에는 규칙적인 박자(beat)도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새의 비상만을 보여주는 것 같다. 협주곡에서

솔로 악기가 자유롭게 혼자, 오케스트라의 무반주로 기교를 발휘하는 것을 '카덴차(cadenza)'라고 한다. 곡 초반부의 카덴차에서 마치 새벽 일찍 잠에서 깨어난 종달새의 기지개 같은 짧은 날갯짓으로 시작하여 좀 더 높이, 좀 더 높이 올라가다가, 아주 여린 소리(피아니시모)로 고음을 길게, 길게 내며 바람을 타고 저 하늘 멀리서 종달새는 활공을 한다. 조용한 날갯짓으로 여기저기 다니는 종달새는 곡의 중반부에 오케스트라의 생기 있는 반주와 함께 새로운 지점을 맞이한다. 주변의 다른 새들과 자연 만물 속에 종달새가 함께 어울려지는 모습이다. 모두가 춤추며 노래하는 생생한 생명력 속에 함께 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전달이 된다.

그렇지만 수많은 새들이 아니라 '한 종달새'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곡의 흐름에서, 수많은 사람



▲ 본 윌리엄스(R. Vaughan Williams)의 '종달새의 비상(The Lark Ascending)'을 연주하는 교향악단과 합창단. 출처: 유튜브 채널 VOCES8 캡처

들 중 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나 한 사람이 전부인 듯 바라보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마 6:26)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 모든 삶의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 내 기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주님. 나보다 더 앞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죄와 세상,

그리고 자아에 매여있지 않고 진리 안에서 나의 영혼이 마음껏 믿음으로 날아올라 달려가길 기다리고 계신다. 믿음의 삶에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얼마나 안전한가!

곡의 마지막에서는 마치 카메라가 하늘 높이 날며 홀로 비상하는 종달새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같다. 믿음의 걸음, 그 종착지, 하늘 본향으로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심을 끝까지 신뢰한다! [GPNEWS]

노현진 선교사



에이즈 걸린 잠비아 다음세대를 만나다

5월 31일 저녁, 잠비아 루사카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27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6월 1일 저녁, 드디어 아프리카 잠비아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저희를 마중 나오신 OM의 선교사님과 함께 OM 잠비아 본부가 있는 카브웨라는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잠비아에 오기 전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이곳의 문화와 환경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온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곳의 문화와 음식들,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비아 사람들은 주식으로 옥수수 가루를 물에 불려서 만든 '슈마'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 음식을 처음 먹는 순간부터, 앞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잠비아는 가뭄으로 인해 보통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정전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수로 씻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잠비아에 온 지 4일째 되던 날, 저희 드림공동체의 우기준 선교사가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일이 있

었습니다. 현지 병원에서도 약 이외에는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2주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말라리아로 고통스러워하는 친구 선교사를 옆에서 간호하면서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당신의 종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현지에 계신 한인 선교사님의 섬김과 한국의 많은 동역자분들의 기도를 통해 현재 우기준 선교사는 회복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에게 말라리아로 인해 힘들었던 지난 2주의 시간을 결코 '헛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저희 드림공동체를 하나되게 하셨으며,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중을 깨닫게 하셨으며, 다시 한번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목적과 뜻하심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불평의 이유가 아닌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만 남은 곳, 잠비아! 이것이 주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임을 알게 하시는 이번 한 달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8월 로고스호프 승선을 앞두고 이곳에서 언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업 시간에 단순히 영어만을 배우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문화를 배우고, 우리가 선교사로서 문화차이에 대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선교지에서의 경건 생활 등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토론도 하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수업 끝에는 항상 NIV 영어성경으로 출애굽기 성경공부를 합니다. 성경말씀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저의 정체성과 목표를 일깨워주는 시간이 됩니다.

평일 오전 수업을 마친 후, 오후 시간에는 OM 잠비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매주 화, 목요일 오후에는 에이즈 링크(AIDS LINK)라는 곳으로 사역을 나갑니다. 현재 잠비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에이즈(AIDS) 환자입니다. 특별히 다음세대들이 HIV에 걸린 부모님으로 인해 에이즈 환자이지만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해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잠비아 아이들을 만나고 에이즈 링크에 방문했을 때는 저를 경계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그런 아이들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게 쉽지 않은 아이들, 혹여나 질병이 옮지는 않을까 염려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하나도 매번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사역은 어떠한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손 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역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와 잠비아의 다음세대는 주님 안에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GPNEWS]

박선민 선교사

(헤브론원형학교 융감한정예병 파송본부 제공)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4. 7. 17 ~ 8. 6 (가나다 순)

개인 권혜령 김선희 김선희 김수미 김신애 김애심 김혜신 박경희 박성규 박신희 안석문 안수경 오세주 유영권 이동엽 이삼연 이영선 이영옥 이종훈 이진희 이향은 장옥경 정범영 정옥영 조복형 조형광 최영석 최정옥 홍찬일 황일문 Linda Lee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거자씨선교회 고현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샘물교회 선한목자교회 웹 스테파니 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주나임교회 참종양터교회 풀뿌리산곡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pnews@kakao.com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